

<특 집 : 도서관에서 만화책 어떻게 할 것인가?>

## 도서관 자료로서의 만화책

■ 라 경 레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어린이실 사서, nana2@hanmail.net



지난 4월 28일,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에서는 “도서관에서 만화책,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있었다. 도서관계, 만화계, 시민계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 제목에서 풍기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2시간 30분 동안 팽팽하게 풍긴 자리였다. ‘만화책이 좋다 나쁘다, 만화책을 봐야 한다 보지 말아야 한다’ 라는 단순한 논리를 넘어서, 만화책을 하나의 문학 장르로 인정하고 도서관에서 이를 자료로써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여기에서는 한 명의 도서관 사서로서 그 현장을 통해 느끼고 확인한 생각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 만화책, 문학 장르의 하나로서의 특성

■ 도서관에서 만화책의 이용행태, 특히 어린이들의 그것을 관찰하다 보면, 그 폭발적인 흡입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태초부터 글자(글책)보다 그림(만화책)을 먼저 접해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만화책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폭 빠져드는 모습이 당연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만화는 표현이 간결하다. 만화책에 욕설이 많이 나오고 줄여 쓰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점이 문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만화가 굉장히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보는 사람은 개인적인 감성과 조건을 중심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특히 만화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칸을 건너뛸 때마다 많은 개입이 일어나게 된다.

만화는 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다. 책도 이런 특징이 있지만, 만화는 유독 혼자 보고 끝내는 경향이 크다. 읽은 후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거나, 리뷰·평론이 안내책자 등으로 소개되는 활동들이 책이나 영화와 같은 다른 매체들에 비해 적다. 내용에 대한 평가가 많지 않다보니 만화책에 대한 평가는 베스트셀러 순위 정도에 그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강력하게 빠져드는 만화는 그만큼 그 효과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정보·지식을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고, 오락적 요소를 통해 만족감을 높일 수 있으며, 교육적 효과(관련 연구결과를 보면 50% 정도는 효과를 본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를 기대할 수도 있다. 실제적으로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감성적이고 지식에의 욕구가 많으며 궁금증과 호기심이 많은 경우가 많다. 반면 큰 영향력이 상업적인 출판에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 어린이 학습만화의 열풍이 그 한 예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의 만화는 만화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 일본의 그것에 비해 유난히 ‘편견과 굴레’에 둘러 쌓여있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만화는 불량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좋은 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하고 그것을 공유·공감하기 어려운 사회적 조건이었다는 것이다.

#### 어린이 만화책의 현실, 그 한 단면

■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어린이실의 대출통계('06.7-'07.4)를 보면 상위 100위의 책들 중 60권이 만화책이다. 또한 10개월여의 기간 동안 자료들의 훼손정도를 살펴보면 일반 글책에 비해 만화책의 관내이용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데스크 참고봉사 중 만화책에 관한 문의가 많은 점, 사서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만화책의 이용행태 또한 만화책에 대한 이용자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해준다. 만화책에 대한 민원 역시 가지각색이다. ‘우리 아이가 꼭 봐야 한다’에서부터 ‘도서관에 만화책은 없어도 된다’라는 의견까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도서관 몇몇에 어린이 만화책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문의해 보았다. 공통적인 의견은 이용자의 요구와 어린이만화책 출판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학습만화 위주로 수서 한다 정도로 모아진다.

출판 시장의 효자로 떠오른 어린이책 코너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학습만화(요즘은 처세술, 다이어트나 미용 등 실용만화가 떠오르기도 한다)라 일컫는 서점용 만화단행본이다. 이는 기존에 작가가 중시되는 만화와는 달리, 출판

사의 기획에 따라 만들어진다. 책읽을 시간도 없고 책읽기도 좋아하지 않는 요즘 아이들은 가볍게 읽을 수 있고 친구들과의 동류의식까지 발휘할 수 있어 좋고, 학부모들은 '만화라도 보는 게 어디냐'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의심스럽고, 만화다운 만화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물론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탄탄하게 만들어진 책도 있다.)

결국 작가는 창작의 자유가 있고, 출판사는 많이 팔고자 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용자들의 태도이다. 어떻게 하면 상업적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다양하고 좋은 만화에 접근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이 도서관이 될 수는 없을까?

**도서관 자료로서의 만화책 선정 : 좋은 만화가 도서관에서 알려져야 한다!**

■ 도서관 자료를 선정할 때에는 사서가 평가하는 그 자료의 가치와 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하게 된다. 실제로 만화책에 대한 평가는 사서의 연령이나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만화책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도 매우 다양하고 극단적이다. 따라서 만화책을 도서관 자료로 선정할 때 좋은 가이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성문화된 기준을 만들기도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참고로 1999년 일본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 발표된 만화자료의 선정기준(안)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그림의 표현이 뛰어난 것
- 조악한 언어를 고의로 사용하지 않은 것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 스토리 전개에 무리가 없는 것
- 속된 표현으로 독자 마음을 자극시키지 않는 것
- 악, 부정이 예찬되지 않은 것
- 전쟁이나 폭력이 미화되지 않은 것
- 약자나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것
- 학문적 진리나 역사적 사실이 고의로 왜곡, 무시되지 않는 것
- 실제 인물은 공평한 시각으로 사실에 입각하여 올바르게 다룬 것
- 독자 대상에 알맞은 작품일 것
- 원작이 있는 것은 원작의 의도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
- 제본이나 용지가 튼튼한 것
- 완결되지 않은 이야기 만화는 원칙적으로 완결된 것을 평가할 것

물론 이런 기준들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특히 어린이 만화책의 경우,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큰 영향력을 걱정한다면 그것을 직접 읽어보고 좋은 만화책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도서관이나 사서의 현실 속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점은 이제 만화책도 도서관 자료로서 구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업적 시장에서 드러나지 못하는 작품성 있는 만화들이 도서관에서 살아난다면, 만화계의 발전과 더불어 이용자들의 문화적 혜택 또한 풍요로워질 것이다.

#### 만화책을 활용한 도서관 프로그램

■ 도서관에서 좋은 만화를 소개하기 위한 시도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 예로 (사)한국만화가협회의 ‘대한민국우수만화 순회전시사업’이 이번 토론회에서 소개되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우수 만화들을 소개하고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어린이들에게 만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었다. 이미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증명이 된 셈이다.

도서관에서 좋은 만화를 좀 더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만화 선정위원회'가 거론되기도 했다. 도서관계와 만화계, 그리고 이용자를 대변하는 시민계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도서관에서 좋은 만화를 좀 더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만화 선정위원회'가 거론되기도 했다. 도서관계와 만화계, 그리고 이용자를 대변하는 시민계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물론 선정위원회가 검열하고 등급을 매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방향에서 좋은 자료를 살릴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좋은 만화를 읽는 사람들의 모임'과 같은 좀 더 가벼운 형태로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핵심은 만화계와 이용자들이 다양한 통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서관이 그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의 독서교육 측면에서 볼 때, 만화책을 통해 글책으로 독서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어린이들이 주제별로 분류된 자료들이 있는 서가에서 같은 주제의 만화책과 글책을 함께 보면서 사고의 범위를 확장해나갈 수 있다. 좋은 만화책을 소개할 때에도 관련 주제의 글책을 함께 소개할 수 있다. 또한 만화책을 읽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토론의 자리도 만들어지면 좋을 것이다. 어쨌든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만화책이 발견되어지고, 어린이들의 자체적인 판단력이 생길 것인 지도 모른다.

만화 강국 프랑스에서는 이미 양질의 만화들이 전국 도서관망을 통해 보급되고 있다고 한다. 국가와, 도서관과, 그리고 국민들이 만화에 대해 열린 마음과 공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아스테릭스'가 유럽 문화의 자존심으로 불리고, '뽕뽕' 시리즈가 재미있고 유익한 최상의 세계사 교과서라고 칭해지는 모습들은 우리의 부러움을 산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명의 도서관인, 사서로서 만화책에 대해 좀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만화에 대한 도서관의 관심과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우리의 만화 발전에, 그리고 도서관의 발전에 한 걸음 보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07)